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촌생활과 농법·농업생산의 특색*

—이옥(李錡)의 『백운필(白雲筆)』을 중심으로—

염정섭**

<차 례>

1. 머리말
2. 농촌생활의 일상(日常)
3. 농법(農法) 정리의 특색
4. 농업생산의 시장지향성
5. 맺음말

<국문초록>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남양도호부 송산에 거주하였던 인물인 이옥(李錡)의 『백운필』을 중심으로 당시 농촌생활의 일상, 농법 정리의 특색, 그리고 농업생산의 시장 지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옥은 송산에서 농촌생활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직접 농업과 관련된 종수(種樹), 화훼(花卉) 재배를 실행하기도 하고, 농민들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 방식을 내면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옥은 자신의 견문에 따른 남양도호부 지역의 농법(農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벼농사의 경종법, 도종(稻種), 기경과 김매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농법을 개량하거나 개선하는 방법, 또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농법에 대한 탐구와 실험 등 방법론적 측면의 노력도 시도하고 있었다. 이옥은 노농(老農), 농인(農人), 인인(隣人)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견문(見聞)하는 방식으로 농리(農理)에 접근하고 있었다.

* 이 글은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수행한 ‘2019년도 화성시 남양도호부 문화콘텐츠개발 사업’에 의해 연구하여, 2019년 화성시·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주관한 학술발표회 “남양도호부 사람들의 생업과 경제”(2019.11.15)에서 발표한 원고를 크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이옥은 『백운필』에서 당시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생산의 여러 가지 면모를 정리하고 기록하였는데, 칩을 캐어서 그대로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가공을 통해 끈이나 그물을 만들어 생업을 영위하는 모습에 주목하였고, 담배 재배도 향기와 매운 맛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품작물의 대명사인 인삼(人蔘) 재배에 주목하고, 이와 더불어 육우(肉牛)를 사육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례를 호서와 쌍부 지역에서 지목하고 있었다. 또한 꽃시장에 버금하는 화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옥이 정리한 남양도호부의 농업생산의 특징의 하나는 시장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옥(李錡), 남양도호부, 백운필(白雲筆), 농법, 인삼(人蔘), 육우(肉牛)

1. 머리말

조선 후기 농업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의 발달, 농업경영의 변동, 국가적·사회적 농업체제의 변화 등과 더불어 농민생활, 농민항쟁, 농촌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었다.¹⁾ 하지만 구체적인 농업생산이 진행된 역사적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 기술 특색’을 검토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촌생활의 미시적인 상황’을 살핀 연구도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농서(農書) 이외에 다양한 사료에 담겨 있는 농업생산의 구체적인 모습, 농업기술의 특징, 농촌생활의 일상적인 모습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로 농업사 연구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민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료(史料)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1) 조선 후기 농업사를 다룬 한국사 분야의 주요한 성과는 김용섭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Ⅰ]-農村經濟·社會變動-』, 일조각, 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Ⅱ]-農業變動·農學思潮-』, 일조각, 1971.

관찰자에 머물러 있는 향촌 유생의 기록, 거의 대부분이 명령과 보고의 차원에 한정되어 있는 공문서 등에서 농민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역사학 관련 연구에서 조선왕조 시기 각 지역 농업의 역사에 주목하고 검토하였지만,²⁾ 19세기 후반 이전시기 조선의 농업 현실을 지역적으로 찾아보고 모색하는 연구작업은 이제 막 첫발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이옥(李錡)의 『백운필(白雲筆)』은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경기 남양도호부 지역의 농업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문학 관련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백운필』의 내용 검토를 통해 남양도호부의 농업 현황을 검토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업을 검토하는 본 연구가 지역농업사를 찾아서 복원하는 연구성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리 설명한다면 남양도호부의 농업사 일단을 찾아볼 수 있는 이옥의 『백운필』을 토대로 삼아서 지역농업사 연구를 수행한 것이라고 토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선 팔도의 농업현황을 궁구하는 연구사적 이상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인 남양도호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조선 시대 남양도호부는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수원(水原)과 안산(安山)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³⁾ 19세기 중반의 『경기지(京畿誌)』에 남양부를 설명하는 기록에 보이는 “고기잡이와 소금굽는 일을 이롭게 여겨, 농업과 잠업에 게으르다. 그러므로 빈궁(貧窮)한 자들이 많고, 부요(富

2) 崔洪奎, 『朝鮮後期 鄉村社會 研究: 正祖時代의 華城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엄정섭, 「제3부 18세기 후반 地域農法의 구조와 특색」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299~420쪽;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이정수, 「조선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 경영」 『지역과 역사』29, 부경역사연구소, 2011, 209~256쪽.

3)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南陽都護府 (영인본 5책 619쪽).

饒)한 자들이 적다. 또한 토지가 척박하고 자주 흉년이 들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대비하여 검소하게 아끼는 습속이 많다.”⁴⁾라는 간결한 설명이 남양도호부 풍속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남양부의 면모를 농촌, 어촌의 모습을 갖춘 지역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옥의 『백운필』을 살펴보면 남양부는 거리상으로 한성부와 멀지 않고, 수원부(화성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농촌의 농업생산, 어촌의 어업활동 등이 남양부의 중심적인 생산부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회지의 상업적인 분위기와 연결되는 점도 갖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당시 남양도호부에 거주하던 민인(民人)들의 농업관련 실상, 즉 농촌생활의 일상, 농법의 특색, 농업생산의 특징 등을 찾는 연구 즉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업관련 사실(史實)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눈길을 끌어당긴 인물이 바로 이옥(李鈺, 1760~1815)이다. 이옥이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송산(松山)⁵⁾에서 생활하면서 획득한 경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백운필(白雲筆)』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이옥(李鈺)의 『백운필(白雲筆)』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후반 남양도호부의 농촌생활, 농법(農法) 정리, 그리고 농업생산의 특징을 기초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에서 살았던 민인들의 생활사 일단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옥의 『백운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옥은 『백운필』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남양 지역의 자기집과 백운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 견문 등을 글쓰기 소재로 삼아 기록하였다.

-
- 4) 『京畿誌』「南陽都護府」; 風俗, 利於魚鹽, 惰於農桑, 故貧窮者多, 而富饒者小. 且土地瘠薄, 頻逢歉歲, 人多有艱難儉嗇之俗.
- 5) 松山은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에 속한 13개 坊里 和尺只·旆知串·分鄉里·楮八里·屯知串·陰德里·馬道·新里·西如堤·松山·細串·水山·雙守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南陽府邑誌』(규장각 소장, 古915.12-N152b)

『백운필』 「소서(小敍)」에서 이옥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동식물, 새, 물고기, 짐승, 벌레, 꽃,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로 항목을 분류하여 짝막하게 그 특징이나 성향, 명칭, 가격, 관련된 경험, 속담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이 바로 『백운필』이라는 저작이다.⁶⁾ 최근에 조선 후기 문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백운필』을 검토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백운필』에 대한 이해도 다방면으로 깊어지고 있다.⁷⁾

이옥이 『백운필』을 저술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백운필』의 성격을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옥이 『백운필』을 지은 의도를 그의 소서(小敍)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소서를 통해 이옥이 『백운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한다. 소서에 등장하는 백운(白雲)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소서」 앞부분에 보이는 대화 형식의 글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筆)을 어찌 백운(白雲)이라 이름 붙였는가.

백운사(白雲舍)가 필(筆)한 바이다.

백운(白雲)은 어찌하여 필(筆)하였는가.

대체로 부득이하여 필(筆)한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부득이하여 필(筆)하였는가.

백운(白雲)이 애초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하일(夏日)이 바야흐로 지지부진한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無人>,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일이 없다<無事>. 이미 일이 없고 또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이와 같이 애초에 치우쳐 있는 땅에서 지지부진한 시간의 흐름을 지우지 않을 것인가.⁸⁾

6) 김경미,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긍정과 지식의 재배치」 『고전문학연구』48, 2015, 331쪽.
7) 최근에 이옥 문학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연구 성과를 모아 간행한 『화성시 학술총서 01: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2012, 화성시)에서도 『백운필』을 주요하게 검토한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대화에 등장하는 무인(無人)과 무사(無事)는 이옥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웅변해주는 형용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여름날에 길을 나갈 수 없고, 잠잘 수도 없으며, 독서(讀書)와 간서(看書)도 모두 할 수 없고, 그 밖에 놀이와 관련된 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그는 ‘이런 시절에 이런 곳에서’ 부득이 하게 손으로 혀를 대신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담(談)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천(天), 지(地), 인(人), 귀(鬼), 성리(性理), 문장(文章), 석로(釋老), 방술(方術) 등을 담(談)하지 못하고, 오직 담조(談鳥), 담어(談魚), 담수(談獸), 담충(談蟲), 담화(談花), 담곡(談穀), 담과(談果), 담채(談菜), 담목(談木), 담초(談艸) 등 10가지를 담(談)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득이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소서]에 담긴 이옥의 주장, 논리 전개에 따르면, 그는 만일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상황에 매몰되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담론(談論)하는 일에 몰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가지 담론의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면 그것은 이옥이 일상(日常)에서 눈여겨 보면서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언급대로 어느날 갑자기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준비된 글을 모아 『백운필』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열망은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日常)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양도호부 송산의 일상이 바로 『백운필』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옥이 기록한 ‘송산의 일상(日常)’의 많은 부분은 바로 농촌현실, 농법, 농업생산 등 농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8) 李鈺, 『白雲筆』 『小敘』(『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25쪽): 筆曷爲名白雲, 白雲舍之所筆也. 白雲曷爲筆之, 蓋不得已筆也. 曷爲不得已筆之, 白雲素僻, 夏日方遲, 僻故無人, 遲故無事. 既無事又無人, 吾曷爲消此方遲之晷於素僻之地也.

이옥의 저술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글 속에 지역성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녹아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그의 글이 지역, 생활, 사물, 민속 등 당대의 생활의 일상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국가의 제도, 사회의 경세, 나라의 정책 등 굵직한 체제를 세우는 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내용을 총괄한다면 이옥의 저술, 이옥의 글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일상의 발견’, ‘일상의 정리’ 등 ‘일상(성)’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운필』에 보이는 이옥의 소품(小品)들은 너나 할 것없이 글쓰기 소재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그리고 글쓰기 대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직접적인 묘사와 더불어 대비적, 비유적 서술 또한 돋보이게 들어 있는 글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여기에서는 이옥이 『백운필』에서 서술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촌생활, 농법의 특색, 농업생산의 주요한 편린을 보여주는 단편을 깊이 살펴볼 것이다.

2. 농촌생활의 일상(日常)

먼저 『백운필』과 저자인 이옥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백운필』의 저자인 이옥은 남양도호부에서 출생한 인물이다. 이옥에 대하여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8세기 말 성균관 유생 시절 정조의 문체반정 주요 대상자가 되어 혹독한 고초를 겪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1792년 성균관 유생일 때 소설식 문체의 응제문(應製文)을 올려 정조에게 문체를 고치라는 엄명을 받았다. 이른바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

正)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문체반정의 대상자들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반성문 제출 등으로 고난을 벗어난 반면에 이옥은 1800년 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옥의 본가는 남양도호부 송산 매화동에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옥의 조부 이동윤(李東潤) 때부터 남양에 거주하였고, 부친 상오가 다시 한양에 거주하다가, 1781년부터 남양과 한양을 오가며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옥도 서울과 남양을 왕래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옥은 부친상 직후인 1797년 한양 집을 팔고 남양으로 완전 낙향하였다고 한다.¹⁰⁾

그리고 이옥은 1792년 봄에 문체반정에 연루되면서, 1795년 8월에서 1800년 2월까지 경상도 삼가현에 충군(充軍)되어 현지에서 머물렀다. 그러다가 1800년 2월 경과(慶科)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도중에 사면을 받아 남양의 고향집으로 귀향하였다. 남양의 자신의 집을 백운사(白雲舍) 또는 백운헌(白雲軒)으로 불렀는데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1803년 5월로 기록된 『백운필』 소서(小序)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옥은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남양으로 완전히 낙향하여 생활하던 시기에 『백운필』의 소서」를 저술하였다.

위의 내용을 이옥과 남양도호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1781년 이후 부친인 이상오를 따라 남양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795년까지 한양과 남양을 오고가면서 공부와 교유를 이어나갔으며, 1795년에서 1800년까지는 대부분 경상도 삼가현에 머물렀고, 1800년 이후에 『백운필』 소서」를 작성하는 1803년까지 남양의 본가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을 영위하였다.

이옥의 외가인 남양 홍씨의 세거지가 남양 백곡리(현 화성시 마도면 백

9) 김영진, 「제1장 이옥의 가계와 교유<附 연보>」,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화성시 학술총서 01, 화성시, 2012, 28쪽.

10) 김영진, 같은 책, 21쪽.

곡리)라는 점에서 이옥의 부친 이상오(李常五, 1722~1796) 대에 남양 지역에 충실한 근거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옥의 부친인 이상오는 1754년(영조 30) 진사시에 입격하고 첫째 부인이 일찍 죽자 이원현감을 지낸 남양 홍씨 홍이석(洪以錫)의 딸과 재혼하여 1760년(영조 36) 39세의 나이에 이옥을 낳았다. 이옥의 외조부인 홍이석 역시 병마절도사를 지낸 홍시주(洪時疇)의 서자였다. 그런데 이상오는 홍이석의 셋째 사위였고, 홍이석의 맏사위는 유춘(柳椿)이었다. 유춘은 북학파이자 사검서(四檢書)의 하나였던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부친이므로 이옥과 유득공은 이종사촌 사이가 된다. 이런 인연으로 유득공과의 교류는 이옥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쳤다.¹¹⁾

다음으로 이옥의 『백운필』에 보이는 당시 농촌생활의 일상적인 모습에 눈을 돌려본다. 이옥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외가가 있는 남양에 별서를 두고 서울과 남양을 왕래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부친상을 당하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는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남양으로 완전히 낙향하여 ‘백운사(白雲舍)’ 혹은 ‘백운헌(白雲軒)’이라 이름 붙인 남양의 집에서 글쓰기에 전념하다 여생을 마쳤다.¹²⁾

이옥이 남양도호부 송산으로 내려와 살게 된 것은 그의 언급에 따르면 1783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에 본래 유수(柳樹) 즉 버드나무가 없었는데, 20년 전에 채찍 정도 길이의 버드나무 2지(枝)를 얻어 뜰 가장자리에 심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가 드리워 그늘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무성하게 되면 매년 잘라내고 옮겨심는 작업을 수행하였더니, 결국 크고 작은 버드나무 20~30주(株)를 얻게 되었는데, 애초의 2그루 버드나무가 이미 노쇠하여 말라버린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¹³⁾

11) 김자운, 「시대와 호흡한 조선후기 송산의 두 지식인, 이옥과 정윤영」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화성문화원, 2016, 92쪽.

12) 김자운(2016), 앞의 글, 91쪽.

이러한 버드나무와 관련된 언급 속에서 자신이 우거(寓居)한 지 20년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운필』의 소서를 지은 1803년에서 20년 이전에 송산지역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옥이 송산으로 이사한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언급을 감<栊>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옥 집안은 신축년(辛丑年) 가을 즉 1781년(정조 5) 가을에 향촌에 교거(僑居)하기 시작하였다. 1781년 이옥 집안이 남양으로 이사하였을 때의 일화 하나가 『백운필』에 수록되어 있다. 그 해 9월에 이옥은 감을 구하기 위하여 백곡(白谷)의 구씨(舅氏, 외삼촌) 집으로 찾아갔다.¹⁴⁾ 이어서 그 집에 수시(水柿)가 많고 매우 아름다웠으며, 해갈하기 위해 연이어 배(杯) 크기 만한 잘 익은 수시 2개를 먹었더니 곧장 상쾌해진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 향촌에 우거한 것과 백곡으로 외삼촌 집을 찾아간 일이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옥 집안은 신축년 가을 즉 1781년 가을에 남양도호부 송산 지역으로 이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옥은 아버지를 따라 향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한양과 남양을 오고가는 생활을 꾸려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1797년에 이르러 이옥은 서울 백문(白門, 서대문) 부근 조애(照厓)에 있던 집을 팔았다. 조애에서 살던 집을 팔게 되면서 완전하게 남양으로 내려가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문 조애에 살던 집은 옛날 남(南) 상서(尙書)가 지은 것으로 ‘담용정(淡容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남상서는 남태제(南泰齊, 1699~1776)인데, 서대문 근처 지금의 경교장 근처

13) 李鈺, 『白雲筆』 「談木」(『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3쪽): 余所居, 素無柳樹, 其初得鞭長者二枝, 插之庭畔, 不多年能垂絲成陰, 及其繁, 每伐而移之, 于今二十年, 得柳大小凡二三十株, 而其二本樹, 則已老而朽矣, 每一顧眄, 不禁有金城之歎, 蓋易長者易老也.

14) 李鈺, 『白雲筆』 「談果」(『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81쪽): 辛丑秋, 余家始僑于鄉, 其九月, 余爲覓柿, 往白谷舅氏宅.

로 추정된다고 한다.¹⁵⁾ 남태제가 그 집에서 살 때 늙어서 벼슬살이에서 물러나면서 화목(花木)을 많이 심었는데, 능히 사시사철에 꽃피는 것이 끊임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집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옥이 살게 되었을 때 진품(珍品)과 희종(稀種)이 이미 모두 흩어지고 없어져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정향화(丁香花), 산수유(山茱萸), 옥매(玉梅), 백척축(白躑躅) 등이 남아있었는데, 이마저 노쇠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매해 봄마다 꽃향기가 사람들을 두들기고, 떨어진 붉은 꽃이 땅에 가득찰 정도여서, 이곳이 성 한가운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이옥이 정사년(丁巳年) 1797년에 이 집을 팔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임목(林木)이 무성하다고 하여 모조리 잘라내버리고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간단하게 적어놓고 있다.

1797년 이후 이옥이 송산에서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을 영위하였고, 확고한 정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백운필』의 많은 기사가 향촌에 우거(寓居)하면서 획득한 경험과 이웃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축적한 견문(見聞)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옥이 구체적으로 거주한 동리(洞里)에 대해서 즉 남양도호부 송산의 어느 곳에서 거주하였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송산의 매화동에 본가가 소재하고 있었다는 연구만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그의 글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시사점을 통해서 장차 그의 거처를 분명하게 비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옥의 집과 별개로 존재하던 그의 집안의 장사(莊舍)는 해문(海門) 즉 지금의 남양군 마도면 해문동 지역에 있었다.¹⁶⁾ 그는 자신에게 양계(養鷄)하기를 권유하는 사람과 거위나 오리를 사육하기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서술 바로 앞에 자신의 집이 물가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

15) 김영진, 같은 책, 28쪽.

16) 李鉉, 『白雲筆』, 「談蟲」(『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0쪽).

다.¹⁷⁾ 그리고 자신에게 닭과 거위, 오리 키우기를 권유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하면서 자신의 집 뒤에 작은 산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옥의 송산 농촌생활의 일상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수(種樹) 즉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향촌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곽탁타(郭橐駝)의 업(業)¹⁸⁾ 즉 종수(種樹)에 전념하였다고 토로하고 있다.¹⁹⁾ 그는 자신이 전후에 심은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소개하는데, 그에 따르면 소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하여 총 31종 700~800그루에 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나무를 키우면서 그는 혹은 열매를 취하거나, 꽃을 취하기도 하고, 그 재목을 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옥의 향촌생활의 주요한 일상은 종수(種樹)와 그에 이어지는 수목 관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곡물(穀物)이나 화훼(花卉) 재배 등에 연이어 이옥의 손길이 필요하였다면 그의 일상은 농민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동노(童奴)와 달리 몸으로 직접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일상은 지상(紙上)의 농업노동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옥은 향촌에 우거하면서 나무 품종에 관한 실험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양(楊)과 유(柳)에 대하여 고인(古人)이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두 가지를 실제로 하나로 파악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지(楊枝)를 도삽(倒插)하면 유

17) 李鈺, 『白雲筆』 「談鳥」(『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30쪽): 以余臨水而家也, 或有勸養鷄者, 有勸畜鵝鴨者.

18) 『古文觀止』 後集 卷九 種樹郭橐駝傳(柳宗元): 郭橐駝, 不知始何名, 疾僂隆然伏行, 有類橐駝者, 故鄉人號之曰駝. 駝聞之曰, 甚善, 名我固當, 因捨其名, 亦自謂橐駝云. 其鄉曰豐樂, 鄉在長安西. 駝業種樹, 凡長安豪家富人, 爲觀遊及賣果者, 皆爭迎取養. 視駝所種樹, 或移徙, 無不活, 且碩茂, 蚤實以蕃. 他植者, 雖窺伺倣慕, 莫能如也.

19) 李鈺, 『白雲筆』 「談木」(『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4쪽): 余旣鄉居, 闌而無事, 專意於橐駝之業.

(柳)가 되고 유지(柳枝)를 도삽하면 양(楊)이 된다는 주장이었다.²⁰⁾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이옥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자신이 종수(種樹)에 전념하면서, 송산의 농촌생활을 꾸려나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고백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대한 견문이나 서책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실험에 의거하여 나무와 관련된 실용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양도호부 농촌생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또다른 이옥의 글은 바로 산초(山草), 야초(野草)에 대하여 설명한 대목이다. 그는 산야(山野)에서 캐낼 수 있는 각종 초(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의서(醫書)에서 갈(葛, 菘)에 대하여 “꽃은 주독(酒毒)을 없애주고, 옅은 금창(金瘡)을 치료한다”²¹⁾라고 기재된 부분을 인용한다. 그리고 우인(友人)이 술 먹기를 좋아하여, 동노(童奴)에게 칩꽃을 캐오라고 시켰는데, 대인(大人)이 그 연유를 묻자 약병주(藥病酒) 즉 병을 치료하는 약주(藥酒)를 만들려고 변명하였는데, 대인이 “네가 술을 먹지 않으면 (술)병이 없을 것이다”²²⁾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한다.

이옥은 노년에 이르러 즉 남양도호부 송산에 우거하게 되었을 때 꽃에 대한 애호가 매우 깊어졌다고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그는 꽃을 키우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화정(花政)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꽃을 매우 사랑하게 되면서 서서히 ‘하루도 그대가 없을 수는 없다’는 뜻을

20) 李鈺, 『白雲筆』, 「談木」(『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4쪽); 楊之與柳, 古人辨之而明, 而余則曰, 楊與柳, 其本一也. 倒插楊枝則爲柳, 倒插柳枝則爲楊.

21)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9쪽); 醫書稱葛曰, 花消酒毒, 葉療金瘡.

22)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9쪽); 余有友人, 人性嗜酒, 課童奴采葛花. 其大人問采之何, 曰藥用, 曰奚藥, 久之曰, 藥病酒. 其大人曰, 有藥尤妙, 汝不飲則無病矣.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하여 매년 뜰 가장자리에 무궁화(無窮花), 측규화(蜀葵花)를 심고, 사계(四季)와 월계(月季) 2,3뿌리를 나누어 길렀다. 대략 일년의 화료(花料)를 갖춘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갖춘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이옥은 최근에 얻은 석성(石成) 김(金)이 지은 『화력(花曆)』을 살펴보고 달마다 꽃을 안배하여 화령(花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지만, 향곡이 누추하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²³⁾

그리고 그는 목단(牡丹) 즉 모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해향(海鄉) 즉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모란이 많이 산출되는데, 자신도 작년(1802년) 늦은 봄에 이웃 사람에게 5, 6뿌리를 얻어서 백운사(白雲舍) 앞에 열을 맞춰 심었고, 작약(芍藥) 3그루를 그 곁에 심었으며, 또한 무궁화 1줄기를 그 서쪽 오동나무 아래에 심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²⁴⁾ 이처럼 모란 등을 자신의 집에 심고 자그마한 화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농촌생활 속에서 당시 농민들의 관념을 수용하여 내면화해 나가기도 하였다. 이옥은 용의 존재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용의 존재를 신빙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784년 이옥 자신이 용(龍)과 관련된 현상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는 용(龍)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직접 용오름<龍升>을 보았다고 『백운필』에 소개하고 있다. 그는 화석(花石)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백주에 소나기가 내리더니 천둥과 벼락이 쳤는데, 멀리 선감도(仙甘島) 바깥을 보니 흑운(黑雲)이 바다에서 일어나 힘써 달려가는 것이 매우 빨랐다. 드디어 바다에서 멀어지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위쪽은 두툼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모습이었다. 천천히 이동하였는데, 대략 그 크기가 10보(步) 정도 떨어진

23)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6쪽).

24)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5쪽).

사이에 다섯 아름<五圍> 정도되는 묽음을 거꾸로 매단 것같은 정도였다. 사람들이 모두 용오름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구름이 걷히고 파도가 조금 높아지니 하얗고 가늘며 길이가 수백 척에 달하는 물체가 구부러진 채 움직였는데, 마치 사람이 끌어당겨서 조정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것을 용이 올라간 다음에 꼬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용이었음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의 목격담을 전해주고 있다.

이옥의 용 목격담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선감도(仙甘島)라는 곳이었다. 선감도는 현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한 섬인데, 대부도의 시화 방조제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남양군 존속 당시 대부면(大阜面) 선감동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이옥이 생존할 당시에는 당연히 섬이었을 것이고, 그는 선감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용오름을 관측한 것이다.

이옥은 많은 먹거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²⁵⁾ 그 가운데 석화(石花, 굴)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 주목된다. 그는 “석화를 유용하게 먹는 방법으로 회(膾)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저(蓴, 절임), 해(醢, 젓갈), 죽(粥), 전(煎)의 순서이며,羹(羹)이 가장 나쁘다. 또한 두부와 미역을 잘라서 국을 만들면 또한 미각(味覺)이 사치스러워진다.”²⁶⁾ 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화(石花)와 관련된 기사를 『본초(本草)』 등 여러 책에서 찾아내서 기술한 다음 석화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득공(柳得恭)에게 석화를 보내면서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석화 이외에 『백운필』 10개의 담론에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분명

25) 주영하, 「제6장 이옥이 기록한 18~19세기 조선의 음식」,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화성시 학술총서 01, 화성시, 2012, 213~278쪽.

26) 李鈺, 『白雲筆』, 「談魚」(『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41쪽); 大抵石花之用, 膾爲上, 蓴次之, 醢次之, 粥次之, 煎次之, 羹爲下, 又以藏豆腐及藿羹 則亦覺味奢.

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에 한정된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옥은 송산에서 농촌생활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였다. 직접 농업과 관련된 종수(種樹), 화훼(花卉) 재배를 실행 하기도 하고, 농민들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 방식을 내면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촌생활의 일상 그 자체인 음식(飲食)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을 남겨놓았다.

3. 농법(農法) 정리의 특색

17세기 이후 조선의 농서 편찬 흐름을 정리해 보면,²⁷⁾ 노농(老農)의 농업기술, 경험과 지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여 문자로 서술하면서, 농서(農書)의 내용이 실제의 농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기후와 토양 조건, 그리고 해당 지역의 농사경험에 근거한 이른바 지역농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서 편찬에 반영되었다. 또한 곡물 중심의 경작법 서술에서 벗어나 채소(菜蔬)와 과수(果樹) 등 농민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품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고려하는 농업생산과 연관된 여러 생산물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농서의 편찬이 이루어졌다.²⁸⁾ 이와 더불어 특정한 작물이나 농산물의 재배

27) 조선 시대 농서 편찬에 대한 주요한 연구 성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金容燮, 『朝鮮後期 農學의 發達』, 韓國文化研究叢書 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0; 宮嶋博史, 『李朝後期農書의 研究』, 『人文學報』 43,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1977; 李盛雨, 『韓國食經大全』, 鄉文社, 1981; 金榮鎮, 『朝鮮時代前期農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1988; 廉定燮, 『조선시대 농서 편찬과 農法의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8) 葉正섭, 「17~19세기 農法 연구와 農書 편찬의 추이」, 『韓國實學思想研究』, 4-과 학기술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395~397쪽.

법을 정리하거나, 특정한 농업기술에 대한 서술로 내용을 채운 전문농서의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전후의 농서 편찬 흐름은 현실의 농법을 농서 편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농서 편찬의 흐름은 ‘농법(農法)의 정리’를 보다 완결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옥의 『백운필』 내용 가운데 농서(農書)의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성격을 넓은 의미의 농서로 간주하는 데에 크게 곤란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백운필』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동식물, 새, 물고기, 짐승, 벌레, 꽃,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 성향, 명칭, 가격 등에 관련된 경험, 속담, 견문 등을 정리하여 기록한 기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사를 하나하나 정리하면 농서로서의 면모가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옥은 농업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혀나가면서 이와 더불어 여러 서책에서 농업기술에 관련된 대목을 발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맥도(麥稻)라는 도종(稻種)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에서 농서(農書)에 수록되어 있는 건양(乾秧), 건이(乾移)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²⁹⁾ 그가 참고한 농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양법이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수록된 이후에 다른 농서에서도 보인다는 점에서 『산림경제』나 ‘산림경제증보서’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참고한 농서가 현재 전해지지 않는 미지(未知)의 농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림경제』나 ‘산림경제증보서’로 단정하여 한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는 주변의 농리(農理)에 해박한 사람들과 농사를 대화의 주제

29) 李鉉,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3쪽).

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내용을 『백운필』에 수록하였다. 조선왕조의 농서 편찬에서 노농(老農)이 주요한 발화자 또는 정보 제공자로 등장하는 것은 늘상 벌어지는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강희맹(姜希孟)이 지은 『금양잡록』은 내용 자체가 강희맹과 어느 이름모를 노농(老農)사이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운필』에 보이는 농리에 해박한 사람들과의 농사 주제의 담화는 그 구성방식이나 내용에서 농서의 성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담곡(談穀)에서 수수(黍)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에 이웃이 주변의 농리(農理)에 해박한 사람들과 농사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보인다.

일찍이 우리 마을에 살고있는 김옹(金翁)이 농리(農理)를 능숙하게 꿰차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한옹(韓翁)과 더불어 여러 곡식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들었다. (김옹이) 말하기를 “한 낱알로 한 말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수가 그러하다”라고 하자, 한옹이 믿지 않았다. 김옹이 더불어 한 동이 술을 내기로 결었다. 봄에 삼태기 하나에 비토(肥土)를 가득 담고 수수 4,5립을 심었다. 싹이 트자 드디어 건설한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거름을 넣어 주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하여 양을 헤아리니 과연 한 말이었다.³⁰⁾

수수가 다수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낱알 하나로 한 말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용문을 통해 당시 농사에 대한 문답이 오고간 상황을 다각도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이웃에 사는 김옹과 한옹 두 사람 모두 농리(農理)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농리(農理)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검증을 수

30) 李鉉,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1쪽).

행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의 농리(農理) 대결의 결과는 실험, 시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농작물 재배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품종개발 연구의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은 현대 농학의 발달을 기다려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옥의 『백운필』 내용³¹⁾ 가운데 농서(農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담조(談鳥), 담어(談魚), 담수(談獸), 담충(談蟲), 담화(談花), 담곡(談穀), 담과(談果), 담채(談菜), 담목(談木), 담초(談艸) 10필(筆)의 모든 부분이 농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담충(談蟲)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중에도 농서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한 내용이 보인다. 이옥 자신의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을묘년(乙卯年, 1795년) 가을에 보리가 막 익으려고 할 때 홀연히 흑충(黑蟲)이 나타났는데, 길이가 2촌 가량이었고, 주둥이가 뽕족하고 붉으며, 보리 줄기를 씹어서 결국 이삭이 떨어지게 하였다. 온 밭에 가득찼고, 보리마다 붙어있었다. 매일 한낮이 되면 밭에서 벗어나 그들로 찾아들어, 보리밭에서 가까운 집 마당과 담벼락이 모두 검정색이었다. 심지어 풀이나 벼도 갹아먹었고, 흑충이 지나간 뒤에는 마치 말이 씹어먹는 것같았다. 그런데 보리를 다 베어낸 후에 홀연 며칠 사이에 모두 사라져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전민(田民)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로 허망하지만 또한 괴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때 해문(海門)의 장사(莊舍)에 갔을 때 직접 본 일이다.³²⁾

31) 李鈺, 『白雲筆』, 「小敍」(『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26쪽); 然則吾又將曷談而筆之耶, 其勢不得不談, 而不談則已, 談則不得不 談鳥 談魚 談獸 談蟲 談花 談穀 談果 談菜 談木 談艸而已矣, 此白雲筆之所不得已也, 亦不得已談此也. 若是乎人之不能不談, 亦不可以談也.

32) 李鈺, 『白雲筆』, 「談蟲」(『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0쪽).

보리에 피해를 주는 흑충(黑蟲)의 생리와 피해 양상을 정리해서 소개해주는 글이나, 송목(松木)에 피해를 주는 벌레에 대한 글 등은 병충해를 방제하고 예방하는 시각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충분히 농서(農書)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옥의 『백운필』에 보이는 농서(農書)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더 검토하면 특기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담화(談花)』에서 자신이 신축년(1781년, 정조 5)에 『화국삼사(花國三史)』라는 책을 지었다고 소개한다. 그가 제시한 목차에 따르면 상편(上編), 중편(中編), 하편(下編)으로 나누어 열전(列傳), 세가(世家), 부록(附錄) 등으로 구성된 책이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마침 근세(近世) 사람이 지은 화사(花史)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통감(通鑑)의 예에 따라 편찬된 것이었다고 한다.

이옥이 지은 『화국삼사』라는 책은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데,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화왕전류의 가전(假傳)을 종합한 방대한 가전(假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화국삼사』에 대하여 “이옥은 이전의 화왕전류 가전(假傳)을 종합하여 방대한 분량의 가전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로 언급하고 있다.³³⁾ 그리고 이옥 자신이 조동계(趙東谿, 趙龜命, 1693년 ~ 1737년)의 『화왕본기(花王本紀)』³⁴⁾ 등을 본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화국삼사』의 경우 제목과 목차구성에서 보면 서명옹(徐命膺)

33) 이홍식, 2004 「東谿 趙龜命 花王本紀 研究」 『한국언어문화』 26, 4쪽. 『화국삼사』는 상중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은 花典, 花謨, 花語, 중편은 花史綱目, 附錄, 하편은 花王本紀, 梅妃竹夫人列傳, 尙昭華列傳, 三容華列傳, 宗室列傳, 蓮濼公世家, 梅公公世家, 芍陂公世家, 桃林公世家, 蕉縣公世家, 芝縣公蘭亭公世家, 杞國公世家, 葵邱公棠縣公桂嶺公世家, 柳將軍列傳, 辛夷微子叔列傳, 冥夾宣嬰列傳, 決明牽牛書帶金錢列傳, 菊潭公列傳, 竹溪先生列傳, 楮先生錄外藩列傳로 목차가 짜여 있다. 李鈺, 『白雲筆』 上, 筆之戊 談花 (『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7~368쪽).

34) 『東谿集』 卷之七, 雜著, 花王本紀.

과 서유구(徐有渠)가 같이 편찬한 『본사(本史)』와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는 농서(農書)가 아닌가 생각된다. 서명응과 서유구가 같이 편찬한 『본사』의 목차구성을 보면 8개의 본기(本紀), 9개의 지(志), 10개의 세가(世家)와 16개의 열전(列傳)으로 나누어져 있다.³⁵⁾ 『본사서(本史序)』에 나오는 그의 설명에 따르면,³⁶⁾ 홍범(洪範) 팔정(八政)에서 식(食)이 세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팔곡(八穀)을 본기(本紀)로 삼고 있다. 본기에서 서명응이 뽑은 8가지의 주요 곡식인 도(稻), 서(黍) 등을 각각 하나의 기(紀)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팔곡이 세상에 나오게 만드는 일과 관련된 것은 지(志)에서 다루고 있는데 총 9개의 지(志)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해서 채소와 과실은 세가(世家)로 하였는데, 총 10개의 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봉토(封土)를 받은 세가들이 토공(土貢)을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수목(樹木), 초훼(草卉), 약재(藥材) 등 그밖의 식물들은 16개의 열전(列傳)에 넣어 기록하고 있다.³⁷⁾

이옥이 지은 『화국삼사』와 위에서 소개한 『본사』는 사(史)의 체제와 유사하게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친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옥이 “일찍이 『동소유고(桐巢遺稿)』를 보았는데, 거기에 화춘추(花春秋)”라는 글이 실려있는데 내용이 내가 앞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였다”³⁸⁾라고 언급한 것에서 ‘춘추(春秋)’라는 단어에 착목하면, 이옥 자신의 글인 『화국삼사』가 ‘사서(史書)’를 본뜬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35) 『本史』가 8개의 本紀, 9개의 志, 10개의 世家와 16개의 列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 9, 10, 16이라는 숫자를 채용하여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36) 『保晚齋集』 卷第七, 序, 本史序.

37) 『본사』의 권12는 다시 4개의 本紀, 4개의 志, 1개의 列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서명응이 손자 서유구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다.

38)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8쪽); 嘗見桐巢遺稿, 亦有花春秋, 而語近余之會所見者矣.

『백운필』를 농서로 간주한다면 주곡(主穀) 작물에 대한 서술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백운필』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곡물에 관련된 내용이 담곡(談穀)에 여러 조목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이옥의 『백운필』 「담곡(談穀)」에 들어 있는 여러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도종(稻種) 구분에 대한 설명, 호서(湖西) 지역의 도종(稻種) 34개 소개, 양(粱, 기장)과 출(秫, 수수)에 대한 소개, 출의 다수확성 일화, 전가(田家)의 육전(陸田)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 설명, 대두(大豆) 품종, 수전 경종법으로 부종(付種)과 이양(移秧) 설명, 경(耕)과 운(耘)의 역농(力農) 강조, 건파(乾播) 설명, 맥도(麥稻) 품종 소개, 맥(麥)의 의학적인 이로우파 품종 설명, 기인(畿人)이 맥(麥)을 먹고 서인(西人)이 기장을 먹는 상황 소개, 옥수수 설명, 흑임자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담곡의 내용을 일별하더라도 목차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품종에 대한 설명, 작물의 특성에 대한 언급, 경종법에 대한 소개 등의 내용을 통해 농서로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옥의 도종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호서(湖西) 지역에서 전인(佃人)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것도 대략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총 35종에 해당하는 도종의 특징을 나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³⁹⁾ 이옥은 자신이 소개한 호서 지역의 도종(稻種)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심지 않는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리하여 근세 조선 사회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곡물 품종의 지역적 특화, 지역의 생산조건에 순화된 곡물 품종의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옥은 호서지역의 도종을 소개하는 글에서 도종의 다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9) 李鉉,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9~370쪽).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그 향(鄕) 즉 지역에서 심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산골 사람에게 들으면 또한 산골에서 심는 품종(峽種)이 있고, 경기의 인민에게 들으면 또한 경기의 품종이 있으며, 영남 민인(嶺人)에게 들으면 또한 영남의 품종이 있다. 혹은 하나의 도종(稻種)인데 표기하는 글자에서 차이가 있어서 실로 모조리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⁴⁰⁾

이옥의 도종(稻種)에 관련된 서술 부분을 보면 농서(農書)에 보이는 벼 품종 소개의 글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는 도종(稻種)이 널리 퍼지면서 그 구분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설명하는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토의(土宜), 형색(形色), 절후(節候)로 지목하고 그리하여 명칭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노농(老農)이 도종(稻種)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을 들었는데 100여 종이 나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⁴¹⁾

한편 이옥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즉 남양도호부 송산의 자기집에서 심는 품종이 사발도, 칠승도, 왜다다도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품종의 구분을 성질, 익는 시기, 쌀 색깔, 심는 전토 등의 기준에 의해 나누는 것이 대략의 통론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심는 종자에도 또한 사발도(沙鉢稻), 칠승도(七升稻), 왜다다도(倭多多稻) 등의 도종이 있다. 대개 총괄하여 논하면 그 성질에 차진 것과 차지 않은 것이 있고, 익는 데에 이른 것과 늦은 것이 있으며, 색깔에 흰색, 검은색, 누런색, 붉은색이 있고, 심는 전토에 수전(水田), 육전(陸田)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⁴²⁾

40)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0쪽); 然而此皆其鄉之所業植也. 聞於峽人, 則有峽種, 聞於畿人, 則有畿種, 聞於嶺人, 則有嶺種. 或一稻而所字之者異, 固不可盡詳矣.

41)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9쪽).

42)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0쪽); 余之居所種者, 又有沙鉢稻, 七升稻, 倭多多稻 等種. 蓋統而論之, 則性有粘不粘, 熟有早晚, 色有白黑黃赤, 地有水陸之異而已矣.

이러한 설명은 조선 전기에 강희맹이 『금양잡록』에서 도(稻)의 여러 가지 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질을 여러 요소로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이에 따라 분화되고 특성화된 진정한 의미의 도(稻)의 품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서술한 것과 차이가 있다. 강희맹의 도 품종 설명은 까락<芒>, 이(耳) 등의 외형적 특색과 풍(風)에 대한 적응도와 같은 내면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한 면밀한 관찰의 결과다.⁴³⁾ 『금양잡록』은 까락의 유무, 초발수시(初發穗時)와 숙시(熟時)의 수(穗)·망(芒)·갑(甲)·안(眼, 芽=눈)의 색(色), 피(皮)의 박(薄) 여부, 이(耳)의 예둔(銳鈍) 여부, 풍(風)에 대한 내풍(耐風)·외풍(畏風) 등으로 품종을 구분하여, 조도(早稻)에 3종, 차초도(次早稻)에 4종, 만도(晩稻)에 14종, 한도(旱稻, 山稻)에 3종, 찰벼에 3종 등 총 27개의 벼 품종을 제시하였다.

이옥의 농업기술에 대한 소개는 특히 품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벼 다음으로 량(梁, 기장)의 품종을 짚막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차진 것과 차지 않은 것, 조만(早晚), 적황청백(赤黃靑白)의 4색의 차이가 있는데 그 종류가 가장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농인(農人)들이 언급하는 품종이름으로 자작만(刺雀蔓), 경자추(磬子槌), 묘아답(貓兒踏) 정도의 품종이름을 들어놓은 다음, 모두 상세히 알 수 없고 또한 모두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⁴⁴⁾

농업기술의 지역성에 대하여 이옥은 이를 지기(地氣)의 휴왕(休旺)에 관계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백운필』 서문을 지은 1803년 4월초에 한양에 다녀오면서 곳곳마다 석류꽃이 만개하여 장차 시들려는 기운을 목격하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뜰 앞의 석류를 보니 바야흐

43) 李鎬澈, 1986 「早田作物과 그品種」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82~110쪽 ; 金容燮, 1988 「『衿陽雜錄』과 『四時纂要抄』의 농업론」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81~103쪽.

44)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0쪽).

로 붉은 눈을 띄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6월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꽃이 피었다. 이에 대하여 이옥은 움<窩>에서 꺼내는 것이 조금 늦었고, 종자도 적당한 곳에 심지 못했으며, 물 주는 것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핑계거리를 내세우지만 서울의 석류꽃에 비해 2개월이나 늦은 것 자체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옥은 자신의 집이 한양과 떨어진 거리가 120리에 불과한데 매양 소채(蔬菜)와 과실(果實)이 1삭(朔)이나 지체되어 익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들이는 공력(工力)의 근만(勤慢) 때문이 아니라 지기(地氣)의 휴왕에 관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⁵⁾ 이러한 이옥의 설명은 지기(地氣)의 휴왕이라는 것이 서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반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지기(地氣)의 차이, 즉 기후 조건의 차이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석류꽃의 경우 현대 화훼 재배기술에 따르면 개화(開花) 시기가 양력으로 5월 중순에서 8월초까지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석류꽃만으로 지기의 휴왕을 결부시키는 설명은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이옥은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을 『백운필』 뿐만 아니라 잡저(雜著)로 분류되는 기(記)라는 형식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선경노기(善耕奴記)라는 글을 보면 농사일에 뛰어난 하인(僮)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 들어 있는 선경노(善耕奴)라는 말은 ‘농사를 잘 짓는 하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하인이 특출난 점은 바로 놀라울 정도의 수확량을 보인 것인데 평년 수확의 15배를 거둔 것이었다.⁴⁶⁾ 20두락지에서 벼 300석을 수확한 것이다.

45)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5쪽); 大抵余家之距洛不過百有二十里 而每見蔬菜果實之屬 每遲一朔而後成 非徒人工之勤慢 亦係地氣之休旺矣 物猶然矣 況於人乎.

46) 李鈺, 「善耕奴記」(『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92쪽).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영남에서 하인을 구해와서 일을 시켰다. 이 하인이 특별한 농사짓는 법을 수행하여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이었다. 그의 특출난 농사짓는 법을 보면, 먼저 사석소삽(沙鳥疎澗)한 특성을 지닌 전토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 말, 소, 개의 똥을 주워, 그 전토 표면에 2촌 두께로 넣어주고, 이어서 가을에서 봄까지 12번 기경작업을 하는데 동지 전에 3회, 우수 이후에 9회를 수행하는데 1척 5촌 깊이로 쟁기날이 들어가게 한다. 계속해서 6월에 시우(時雨)가 내리면 이묘(移苗) 하는데, 묘의 간격을 7촌 간격으로 하고, 세번 김매기를 해준다. 이런 다음에 가장 특이한 작업을 해주는데 짚을 엮어 새끼를 꼬고 새끼를 이어서 그물을 만들어 묘를 옮겨 심는 데에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벼가 자라나서 이삭이 꽤게 되면 그물눈 사이사이로 나오게 되는데 그물 위 3척 높이 너머로 자라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거름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기경 작업도 12번이나 실행한 것 뿐만 아니라 논에서 벼가 자라는 상태일 때 새끼로 만든 그물을 덮어준다는 방식을 특별한 비법으로 활용하여 평소보다 15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는 경험을 전해주고 있다.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곡」에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옥은 농사의 근본에 대하여 이른바 역농(力農), 근농(勤農), 정농(精農)을 내세우는데 특히 기경(起耕)과 운자(耘耔)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호연(湖沿)의 역농하여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의 일화를 제시한다. 김매기를 많이 해야만 벼가 충실해져서 낱알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이 농의 도(道)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위의 선경노(善耕奴) 기사를 요약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농지본(農之本)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근실히 갈아주면 도(稻)가 많아지고, 근실히 김매기를 하면 미(米)가 많아진다. 여러 차례 갈아주고, 여러 차례 김매기 하는 것이 곧 농지본(農之本)이다.”⁴⁷⁾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옥은 『백운필』에서 수전(水田) 경종법(耕種法)에 대한 당시의 상황

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직파(直播)와 이앙(移秧)을 각각 부종(付種)과 이종(移種)으로 칭하면서 간략하게 특징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도(稻)를 종(種)하고 세 번 김매기하는 것을 부종(付種)이라 부르고, 앙(秧)을 이(移)하고 두 번 김매기하는 것을 이종(移種)이라고 부른다”⁴⁸⁾고 한다. 그리고 기남(圻南) 지역은 부종이 이앙보다 성하고 호(湖) 이하 지역은 반대로 이앙이 수확이 많고 잘 익는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의 남쪽 지역에서는 부종이 우세하고, 호서 이남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앙이 대세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종법의 차이에 대해 이옥은 토성(土性)과 풍습(風習)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토성과 풍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갈아주고, 여러번 김매기 해주면, 많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지목한다. 이옥의 수전 경종법에 대한 설명은 당시 정조에게 응지농서를 올린 응지인들이 이앙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각각 이앙법의 장점과 약점, 실행할 때 요긴한 조건 등을 언급한 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운필』에는 옥수수에 대한 짙막한 언급이 실려 있다. 실제로 옥수수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로서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된 작물이다. 20세기의 옥수수는 밀과 벼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로 식량이나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다.⁴⁹⁾ 이옥은 옥수수라 불리는 작물이 재배되는 상황이나 식품으로서의 용도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가 어떤 작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

47)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2쪽); 故勤耕者多稻, 勤耘者多米, 屢耕屢耘者, 其爲農之本乎.

48) 李鈺,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2쪽); 其以稻種而三耘之者, 曰付種, 其以秧移而再耘之者, 曰移種.

49) 김중덕, 「옥수수[玉蜀黍]의 語源과 效能에 對한 文獻研究」 『농업사연구』 10-2, 한국농업사학회, 2011, 50쪽.

다고 언급하는데, ‘본초(本草)에 지칭하는 것이 없다(本草無稱焉)’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옥의 설명은 옥수수라는 실체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를 통해 사실(事實) 해명을 추구하는 데 그 방법은 결국 문헌적인 접근법이 주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옥은 노농(老農), 농인(農人), 인인(隣人)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견문(見聞)하는 방식으로 농리(農理)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옥은 자신의 견문에 의거한 남양도호부 지역의 농법(農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벼농사의 경종법, 도종, 기경과 김매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법을 개량하거나 개선하는 방법 또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농법에 대한 탐구와 실험 등의 방법적 노력도 보여주고 있었다.

4. 농업생산의 시장지향성

18세기말 19세기초의 시기는 조선의 정치사 시기구분으로 보아 탕평책의 전개시기가 정조(正祖)의 죽음으로 종료되고, 안동 김씨 김조순(金祖淳) 가문을 중심으로 세도정치라 불리는 정치권력의 별열독점시기가 벌어질 무렵이다. 18세기말의 농업 실정에 대해서는 김용섭의 자세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지만, 19세기에 들어선 이후의 농업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未知)인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옥의 『백운필』을 살펴보면 당시 농업생산의 특징적인 모습이 시장지향적인 성격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옥이 『백운필』을 저술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의도나 사회적 목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백운필』에 수록된 글의 내용이 적어도 솔직한 이옥의 심정, 인식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즉 당대의 현실에 의거

하여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결과물이 『백운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그의 경험과 견문이 도회(都會)의 화려한 정경과 향촌(鄉村)의 간소한 정취를 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 경향(京鄕)의 특징적인 일상의 모습을 『백운필』에 담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제는 『백운필』은 찾아서 독과하면서 검토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당대 경향의 진정한 속살을 남김 없이 드러낼 수 있는가 여부라고 생각된다.

『백운필』에 대하여 경향의 속살, 그리고 송산의 일상을 찾아볼 수 있다면 남양도호부를 포함하여 시골의 일반적인 농업생산의 성격에 대한 이옥의 언급을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옥은 시골과 서울을 비교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한양의 소민(小民)은 집이 매우 협소하고 사람이 비록 맑고 가난하더라도, 매양 집 한구석에 벽오동 한 그루를 심어 키워서 판자로 만든 담장 너머로 높이 자라게 하고, 담장 아래에 주먹만한 돌을 모아서 작은 섬돌(층계)를 만들어 일 년 자란 감나무, 오색의 금봉화, 향협지, 석죽화, 계관화 등 4,5그루를 심는다. 그리고 담장 위에 흙을 조금 채워서 당초(唐椒) 몇 뿌리를 심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또한 저절로 깨끗하게 물로 씻은 듯한 광경이 있다. 향민(鄕民)은 그렇지 않은데, 집옆의 자그만한 땅일지라도 담배, 박을 심고, 비록 묵혀서 버려둘지라도 또한 한 포기 꽃을 심지는 않는다. 이는 실로 화실(華實, 화려와 질박)이 나뉘는 이유이고 도비(都鄙, 도시와 시골)가 구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⁵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시골에서 화훼에 대한 심리적 친근감이 그다지 보

50)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7쪽); 漢陽小民之家, 家既湫隘, 人亦清貧, 每見屋角種一年碧梧桐一樹, 高出板牆, 牆下聚拳石, 築小塔. 塔上所種者, 一年柿 五色金鳳花 鄉荔支 石竹花 鷄冠花 四五本, 牆頭壅土, 種唐艸椒數根, 開花結實, 亦自有瀟灑意. 鄕民則不然, 屋旁隙地, 種菸種瓠, 雖或陳廢, 亦不曾插一艸花, 此固華實之所由分, 都鄙之所由別也.

이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시골의 농업생산이라는 것의 주요한 경향이 경제성, 상업성 즉 시장지향성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개의 향촌의 농업생산이 자급자족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시장을 염두에 두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옥의 견문에 보이는 시장지향적인 농업생산의 모습은 남양도호부 지역이 서울이라는 대소비도시 인근이라는 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양도호부의 농업생산이 갖고 있는 시장지향성을 『백운필』의 기사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옥은 바닷가 지역의 사람들이 칙<葛>을 생업(生業)으로 삼는 것에 주목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칙을 채취하여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끈이나 그물로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려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목격한 것을 바로 시장지향적인 농업생산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옥의 기사를 통해 칙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민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5월과 6월 사이에 칙을 캐서 하얀 속껍질로 만든 줄(청을치)을 만들고, 이것으로 끈을 만들어, 다시 자리를 짜거나 그물을 엮어서 시장에 내다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칙으로 생업을 삼는 자들 방 천장에 빙 둘러 나무 갈고리를 걸어 놓고 앉거나 누워서 쉬지 않고 칙을 끈다고 묘사한다.⁵¹⁾ 하루 종일 또는 칙의 가공에 온종일 몰두하는 모습에서 소규모 가내 상품생산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옥은 인삼(人蔘)을 지목하면서 유력한 상품작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풀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인삼(人蔘), 즉 인삼(人蔘)을

51) 李鉉,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99쪽).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그 가격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하여 인삼을 심어서 키우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가삼(家蔘)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가삼의 가격은 나삼(羅蔘)이나 강삼(江蔘)에 비하여 4분의 3 이하이지만, 가삼을 키우는 자들이 널리 삼포를 넓혀서 의식(衣食)을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삼이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가삼을 재배하는 데 주의해야 할 바에 대해서도 들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득이 매우 많으니 사람들이 어찌 수고로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근래에 가삼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이옥의 언급은 인삼을 채취하는 것에서 인삼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이후 가삼을 재배하여 채취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다음 단계로 수삼(水蔘)을 홍삼(紅蔘)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개성 사람들이 가삼(家蔘)을 재배하는 삼포(蔘圃) 운영에 그치지 않고 홍삼을 제조하였던 것이다.⁵³⁾

또한 담배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의 주요한 산지와 각 지역 담배의 특색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도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토로하면서 담배 품종과 재배법 특히 시비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재배법은 이옥 스스로 직접 담배를 심고 가꾸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먼저 이옥이 직접 담배를 재배한 경험담을 살펴본다.

해마다 수백 그루를 심어서 쓰임에 충족하게 한다. 담배를 심는 토양은 옛날에 온돌로 쓰다가 버려진 곳이 상(上)이고, 붉은 찰흙(塲)이 다음이며, 모래와 돌이 섞인 곳이 하(下)이다. 묘(苗)가 나와서 뿌리가 자라면 이식(移植)한다.

52)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2쪽).

53) 金澤榮, 『韶漫堂文集』 권7, 紅蔘志

자주 김매기를 하면서 복돋아주고, 그 완전한 그루에 거름을 넣어준다. 거름으로 쓰는 것으로 계시백(鷄矢白, 말린 닭똥), 돌중회(突中灰, 아궁이 재), 난애엽(爛艾葉, 곱게 빻은 쑥잎), 마분(馬糞, 말똥), 인뇨(人尿), 착유조(搾油槽, 기름을 짜낸 찌꺼기) 등이 모두 좋다. 그런데 계시(鷄矢)는 매운 기운이 많고, 인뇨는 화(火)에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돌회(突灰)와 마분(馬糞)은 향기가 있고 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⁵⁴⁾

위와 같이 담배 재배에 적당한 토양, 시비재료와 주의점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담배잎과 가지의 정리작업도 제시하는데, “유엽(幼葉) 가운데 땅에 가까운 것을 따내고, 자라나면 그 방지(傍枝)를 다스리며, 이때 또한 꼭대기의 꽃이 핀 가지를 다스리는”⁵⁵⁾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매 한 그루마다 6,7개의 잎만 남기면 담배잎이 두터워지고 맛이 매워진다고 한다. 그 독이 풍성해지기를 기다려 잘라서 묶고 뜨거운 햇볕에 3일 동안 말리고, 그늘에서 10일동안 건조시키면 곧 황적색(黃赤色)이 되는데, 마당에 3일밤을 펼쳐놓아 가을 이슬을 맞게 되면 향기와 매운맛이 결코 서초(西草)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⁵⁶⁾ 이옥은 담배의 효능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담배가 “담(痰, 가래), 벌레, 악심(惡心)을 치료할 수 있고, 또한 우울병(憂鬱病)을 훌러지게 할 수 있으며, 어한(禦寒)의 용도로 쓰기에도 적당하다”⁵⁷⁾고 한다. 이와 같은 자세한 담배에 대한 설명은 결국 담배가 갖고 있는 상품작물이

54)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5쪽); 歲種數百本而資用, 而所種之土, 古突墟爲上, 赤埴次之, 沙石下之. 旣苗而移, 旣根而植. 頻薊且壅, 俟其完而糞之. 所糞者, 鷄矢白, 突中灰, 爛艾葉, 馬糞, 人尿, 搾油槽皆可. 但鷄矢多辛, 人尿不宜火, 惟突灰馬糞, 有香且烈.

55)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5쪽); 摘其幼葉之根地者, 及長治其傍枝, 又治其頂之結花者.

56)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5쪽).

57) 李鈺, 『白雲筆』 「談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404쪽).

라는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西艸)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향기와 매운맛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상품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의 다른 분야인 축목(畜牧)과 관련해서 이옥은 소 사육의 경제성에 주목한 글을 남겨 놓고 있다. 소의 존재가 기경(起耕) 작업에서 관건(關鍵)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사의 하나가 소의 사육과 번식 문제였다. 소를 사육하고 번식하는 방식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소를 도살하는 것을 막는 금령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했다. 이른바 우금(牛禁)이라는 금제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강조사항이었다. 이옥은 선조(先朝, 정조) 을묘년(乙卯年) 즉 1795년(정조 19)에 소를 도살하는 것이 상화(傷和)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파악하고 중외(中外)에 도금(屠禁)을 신명하게 하여 범(犯)하는 자가 없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⁸⁾

우금은 조정의 중요한 정사의 하나였는데, 1795년보다 7년전인 1788년 『정조실록』에서 우금에 대한 이옥의 기술과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해 10월 29일에 북로(北路)의 폐막(弊瘼)에 대해서 올린 박상춘(朴尙春)의 상소 내용을 영의정 김치인 등을 소견하여 의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상춘의 상소가 주요하게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연해 지역에서 해마다 소를 도살하고 있으니 도금(屠禁)을 신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박상춘의 상소 내용에 대하여 김치인은 법금(法禁)을 엄하게 펼치고 오래도록 시행하더라도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우축(牛畜)이 크게 번식되게 하여야 한다고 건의한다. 그리하여 이성원(李性源), 채제공(蔡濟恭) 등의 의견을 모아 결국 “도신(道臣)에게 엄칙(嚴飭)하여 범금(犯禁)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⁹⁾

58) 李鈺, 『白雲筆』 「談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46쪽); 先朝乙卯歲, 亦嘗以此爲傷和之一道, 使中外申明屠禁, 俾無犯者, 實盛德事也.

우금(牛禁)이라는 소 도살 금지조치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이옥에 따르면 우육(牛肉)의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민(官民)이 소 도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는 제사(祭祀), 연음(燕飲), 양로(養老), 공병(供病) 등의 쓰임에 소고기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우금을 범하는 자들이 매우 많아서 법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옥은 호서(湖西)에서 민인들이 송아지 때부터 보리와 콩을 섞여 먹이고, 하루에 3번 먹이고, 날마다 씻겨주어 광백이 나게 하는 사육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키운 소는 올라타지 않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데 쓰지도 않으며, 기경(起耕)에도 동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일에 동원하게 되면 살찌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소를 육우(肉牛)로 사육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육한 육우(肉牛)를 매입하는 상인은 대개의 경우 경상(京商), 즉 서울 장사치였다. 서울에 육우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옥(李鈺)은 축목(畜牧)이 치산(治産)하는 하나의 방도라고 설명하면서 쌍부(雙阜)에서 대량으로 축우(畜牛)하는 어떤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치산(治産)하는 도(道)는 전일(專一)하는 데에 있는데 축목(畜牧)도 그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 청풍(淸風)에 해마다 닭 200시(翅, 마리)를 길러 의식(衣食)으로 삼는 자가 있다. 충청(湖)의 연해에는 항상 100여 마리 개를 키우는

59) 『正祖實錄』 권26, 正祖 12년 10월 29일 丁巳 (46책 11쪽); 丁巳, 召見大臣備堂及曾經北伯人. 上謂領議政金致仁等曰, 朴尙春疏陳北路弊瘼, 頗有意見. 卿等須逐條稟處...致仁曰, 其一, 沿海漁箭里社歲時之屠殺牛畜, 千百殆盡, 價寡者無以辦得, 申明屠禁事也. 屠牛之禁, 年前行會, 何等申嚴, 而況本道開市之需, 牛畜爲多, 地又磽确, 倍用牛力, 屠禁之蕩然, 誠亦寒心. 令道臣, 申嚴法禁, 持久勿弛, 俾有牛畜蕃息之效. 性源曰, 法禁本嚴, 只在營邑, 按而行之. 濟恭曰, 外方牛禁之蕩然, 良可寒心. 嚴飭道臣, 俾無犯禁之弊. 可之.

자가 있는데 재물로 시골에서 이름 높다. 예산(禮山)에는 말을 잘 기르는 자가 있는데 그 처음에는 말을 길러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쌍부(雙阜)에는 소를 1,000마리 키우는 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100마리도 차지 않았다. 목자(牧者)에게 해마다 들이지 말고 2년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 하였고, 숫소와 송아지도 모두 기르게 하였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소 천 마리에 이르렀다. 소 천마리에 이르는 것은 실로 부인(富人)이라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⁶⁰⁾

위 기사의 앞부분은 충청도에서 이옥이 견문한 이야기이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쌍부(雙阜)라는 지역은 바로 남양도호부 인근에 자리한 곳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쌍부(雙阜)는 수원도호부의 속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쌍부는 수원 바로 옆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남양도호부를 사이에 두고 남양도호부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다.⁶¹⁾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사경(四境)을 보면 남쪽으로 수원(水原) 임내(任內) 쌍부(雙阜)가 이십리(二十里) 떨어져 자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내(任內)는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君)·현(縣)에 속한 향(鄉)·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한다.⁶²⁾ 어떤 주(州)에는 임내가 10여 현(縣)에 이르는 것도 있었고, 또 큰 것은 혹은 본 고을의 호수(戶數)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60) 李鈺, 『白雲筆』 「談獸」(『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50쪽).

61)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四境...南距水原任內雙阜二十里,

62) 『太宗實錄』 권28, 太宗 14년 7월 4일 乙亥 (2책 26쪽); 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疏, 一, 前朝設州府郡縣, 又置任內鄉所部曲, 一州任內, 多至十餘縣, 大者或過於本官戶數, 一二戶長主之. 其擾民作弊, 何可勝言. 近年以來, 州縣可并者并之, 可置員吏者置之, 然未盡革. 往者全羅監司尹向啓聞, 凡其道內任內之吏, 皆合於仰官, 奸猾之弊息矣. 其時因此下令, 各道皆依此例施行. 他道監司不能體此, 卒莫之行, 使任內之吏作弊如舊, 乞下攸司, 復申此令, 其中任內人吏奴婢多者, 合於附近縣官之人物少處.

쌍부는 수원의 임내로 남양도호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옥이 쌍부에서 대구모로 소를 사육하던 부인(富人)은 크게 보면 남양도호부의 인근지역의 축목의 양상을 일견 보여주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소를 사육하는 것이 경우(耕牛)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용(食用)으로 시장에 육우(肉牛)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우금(牛禁)이 기본적으로 조정의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소들이 도살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8세기 후반 한성부가 소비도시로 변성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정경으로서 이른바 난로회(煖爐會), 난회(煖會)라 불리던 소고기 취식 풍습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중국 북경지역에서 행해지던 세시 풍속으로 10월 1일에 벌이던 행사였던 난로회가 18세기 조선의 한성부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서울 풍속에 숯불을 피워 화로에 번철(番鐵)을 올려 놓고 소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우면서 둘러앉아 먹는 것을 ‘난로회’라 불렀다.⁶³⁾ 난로회의 유행은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 8폭병풍 가운데 ‘설후야연(雪後野宴)’이라 이름붙은 그림이나 성협(成夾)의 야연(野宴)이라는 그림 속의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다.⁶⁴⁾ 특히 박지원(朴趾源)은 난로회, 난회의 유행을 현실적인 욕망의 추구라는 당대의 세태로 풀이하여 설명하였다.⁶⁵⁾ 난로회의 유행은 한성부의 사족들 사이

63) 홍석모 저, 최대림 역, 『東國歲時記』, 홍신문화사, 113~115쪽; 都俗 熾炭於爐中 置煎鐵 炙牛肉 調油醬鷄卵葱蒜蕃椒屑 圍爐啗之 稱煖爐會 自是月 爲禦寒之時食 卽古之煖會也

64) 김승우·차경희,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69쪽.

65) 朴趾源, 『燕巖集』 卷之三, 孔雀館文稿, 記, 晚休堂記; 余昔與故大夫金公述夫氏, 雪天對爐, 燒肉作煖會, 俗號鐵笠圍. 室中燠烘, 鞏膜襲人. 公先起相携退, 就北軒下, 搖扇曰, 猶有清涼地. 可謂去神仙不遠, 俄見群隸供役, 立廡下, 寒甚頓足, 而子弟群圍, 灑羹爛手, 喧戲不止. 公大笑曰, 熱處早退, 立見其效, 而雪中頓足者, 未沾一灑, 是可念也. 余亦以少年灑羹諷公, 因極論古今人進退榮辱. 公愀然曰,

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궁중으로 지방으로 확산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난로회라는 이름의 모임, 풍습의 유행을 통해 일단 소고기 섭취의 일반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축목업으로서 소키우기가 가능하였던 사정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업의 범위가 자급(自給)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넘어 수익(收益)이라는 무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농업생산의 또 다른 분야인 화훼와 관련된 기사를 『백운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옥의 언급에 따르면 18세기말 조선의 시장에서 화훼(花卉)를 사고파는 화시(花市)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하는 화훼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훼가 간간히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여도 화훼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훼시장이 없어도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⁶⁶⁾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훼시장을 접하였고, 한양 안에서 화훼열풍이 불었음에도 화훼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화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성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다룬 기록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⁶⁷⁾

이옥의 언급을 계속 살펴보면 필운대(弼雲臺) 아래 누각동(樓閣洞) 및 도화동(桃花洞), 청풍계(淸風溪) 등지에 사는 이서(吏胥) 가운데 늙고

知足於富貴之餘, 思休於遲暮之境, 則亦已晚矣, 何樂之有. 蓋公未必能勇決於早退, 而其爲此言, 亦有所感於中也.

66)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4쪽); 我國無花市, 故不會有賣花者, 而惟弼雲臺下樓閣洞 及桃花洞淸風溪等處, 或有吏胥之老而閑且貧者, 多從事於花. 旣寓其樂, 仍作生涯. 故若梅花之托奇查者, 菊花之三色一盆者, 石榴之高而繁結者, 盆竹盆松盆桃之類, 往往出而貨之, 價亦不甚高. 如冬栢梔子映山紅百日紅棕欄倭躑躅柚子屬, 南方之民, 擔負船運, 灌輸乎權貴之門, 非市而可得者也.

67) 윤지안, 「조선후기 화훼인식 확대와 지식정리-한양 및 근기를 중심으로-」 한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26~27쪽.

한가하면서 가난한 자 가운데 화(花)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생애를 마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동백(冬栢), 파자(梔子), 영산홍(映山紅), 백일홍(百日紅), 종려(棕欄), 왜철쭉(倭躑躅), 추자(柚子) 등은 남방(南方)의 민인들이 짊어지거나 배로 운반해서 권귀(權貴)의 집안에 옮기는데 이는 화시(花市)가 아니면 생겨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옥의 언급에서 국가가 개설한 공식적인 화시(花市)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화훼를 사고파는, 그리하여 팔기 위해서 화훼를 재배하는, 이른바 화훼 재배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꽃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운필』에서 남양 지역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전문 화훼가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옥은 매우 정성스럽게 국화를 비롯한 여러 꽃의 재배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국화의 품종이 매우 많은데, 서울밑에서 찾아본 품종의 경우 10여 종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화를 배양(培養)하는데 소가 국화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곧 모조리 뜯어먹는다는 주의사항도 지적하고 있다.⁶⁸⁾ 한편 화훼 재배기술의 발달은 꽃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꽃잎염색 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굽벙이 가루를 흰 국화에 뿌려 검게 만들거나 연밥을 쪽 염료 속에 담가두었다가 심어 과란색 연꽃을 만들 수 있다⁶⁹⁾고 한다.

『백운필』에는 농업생산과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는 관점을 보여주는 글도 보인다. 그 가운데 흑임자(黑荏子, 검은깨)에 대한 설명에서는 흑임자를 활용한 ‘흑임자다식(黑荏子茶食)’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8)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1쪽).

69) 李鈺, 『白雲筆』, 「談花」(『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63쪽); 亦或有致人巧於其間者, 如菊本無烏色, 而以蟻蟻末, 夜糝白菊, 則朝起如漆. 蓮本無碧色, 而浸蓮子於靛瓮中, 種之, 則花作淡青色. 此則亦人工之變幻天質者也. 桃花之一株而三接者, 亦甚奇.

(내가) 일찍이 채마밭에 흑임자를 심었는데 그 수확이 백마(白麻, 참깨)보다 좋았다. 이것이 거승(巨勝)이라는 이름에 팔곡(八穀)가운데에서 승(勝)이라는 글자를 취하여 쓴 이유이다. 세속(世俗)에 꿀과 섞어서 니(泥)를 만들고, 꽃무늬를 찍어서 완성하는데, 흑임자다식이라고 부른다. 송화(松花) 황률(黃栗)의 무리보다 맛이 뛰어나다.⁷⁰⁾

이옥은 아주 간단한 조리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거승자(巨勝子), 흑임자 등으로 불리는 검은깨의 효능을 벽곡(辟穀), 불기(不飢)라는 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흑임자가... 즉 복식가(服食家)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바인데, 아홉 번 찌고 아홉번 말린 다음 찼어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곡식을 꿀을 수 있고, 굶주리지 않는다. 거칠게 갈아서 죽을 만들면 또한 신장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흑임자의 효능을 구황(救荒), 벽곡(辟穀) 등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작물의 생산기술을 넘어서서 실제 작물이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효용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옥은 『백운필』에서 당시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생산의 여러 가지 면모를 정리하고 기록하였다. 칙을 캐어서 그대로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가공을 통해 끈이나 그물을 만들어 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담배 재배도 상품성으로서 향기와 매운맛에 대한 강조가 늘상 덧붙여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품작물의 대명사인 인삼(人蔘) 재배에 대한 강조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육우(肉牛)를 사육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례를 호서와 쌍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한 꽃시장에 버금하는 화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옥이 정리한 남양도호부의 농업생산의 특징은 시장지향성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70) 李鉉, 『白雲筆』, 「談穀」(『완역 이옥전집 4, 자료편-원문』, 374쪽).

5. 맺음말 – 남아있는 과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남양도호부 송산에 거주하였던 인물인 이옥(李錡)의 『백운필』을 중심으로 당시 농촌생활의 일상, 농법 정리의 특색, 그리고 농업생산의 시장지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옥은 송산에서 농촌생활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였다. 직접 농업과 관련된 종수(種樹), 화훼(花卉) 재배를 실행하기도 하고, 농민들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 방식을 내면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촌생활의 일상 그 자체인 음식(飮食)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을 남겨 놓았다.

또한 이옥은 자신의 견문에 의거한 남양도호부 지역의 농법(農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벼농사의 경종법, 도종, 기경과 김매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법을 개량하거나 개선하는 방법 또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농법에 대한 탐구와 실험 등의 방법적 노력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옥은 노농(老農), 농인(農人), 인인(隣人)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견문(見聞)하는 방식으로 농리(農理)에 접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옥은 『백운필』에서 당시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생산의 여러 가지 면모를 정리하고 기록하였다. 줌을 캐어서 그대로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가공을 통해 끈이나 그물을 만들어 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담배 재배도 상품성으로서 향기와 매운맛에 대한 강조가 늘상 덧붙여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품작물의 대명사인 인삼(人蔘) 재배에 대한 강조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육우(肉牛)를 사육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례를 호서와 쌍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한 꽃시장에 버금하는 화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옥이 정리한 남양도호부의 농업생산의 특징은 시장지향성이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백운필』을 구성하고 있는 담조(談鳥), 담어(談魚), 담수(談獸), 담충(談蟲), 담화(談花), 담곡(談穀), 담과(談果), 담채(談菜), 담목(談木), 담초(談艸)의 서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경영의 다각적인 전개와 관련된 채소, 수목, 화훼 등을 좀더 면밀하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옥은 다른 저작을 좀더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배재배기술, 담배 흡연법, 담배 관련 도구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연경(烟經)』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담배 백과사전으로 평가되는데 이옥이 1810년에 쓴 책으로 비정된다.⁷¹⁾

마지막으로 이옥의 『백운필』 중심으로 정리한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 지역의 농업 관련 기초자료조사 정리작업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때 『백운필』의 10개 항목이 주요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운필』의 내용을 중심으로 18세기와 19세기 조선의 농업의 실재를 곁들여서 유물, 유적과 더불어 전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시실과 체험관에서 실제의 유물, 유적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의 체험 기회를 같이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1) 이옥 저 안대회 역, 2008 『연경, 담배의 모든 것 - 18세기 조선의 흡연문화사』, 휴머니스트

참고문헌

- 김경미,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긍정과 지식의 재배치-이옥의 <백운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368~400쪽.
-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417쪽.
- 김승우·차경희,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소고기의 식용과 금지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5, 64~76쪽.
- 김영진, 「제1장 이옥의 가계와 교유<附 연보>」,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화성시 학술총서 01, 화성시, 2012, 13~48쪽.
- 金容燮,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1988, 472쪽.
- 김자운, 「시대와 호흡한 조선후기 송산의 두 지식인, 이옥과 정윤영」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화성문화원, 2016, 90~126쪽.
- 김종덕, 「옥수수[玉蜀黍]의 語源과 效能에 對한 文獻研究」, 『농업사연구』 10-2, 한국농업사학회, 2011, 49~83쪽.
- 염정섭, 「제3부 18세기 후반 地域農法의 구조와 특색」,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299~420쪽.
- 염정섭, 「17~19세기 農法 연구와 農書 편찬의 추이」, 『韓國實學思想研究』 4-과 학기술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395~470쪽.
- 윤지안, 「조선후기 화훼인식 확대와 지식정리-한양 및 근기를 중심으로-」, 한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43쪽.
- 이옥 저 안대회 역, 『연경, 담배의 모든 것-18세기 조선의 흡연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324쪽.
- 이정수, 「조선 후기 盧尙樞家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29, 부경 역사연구소, 2011, 209~256쪽.
- 이현우, 이옥의 생애와 작품세계 『완역 이옥 전집』, 휴먼역사, 2009, 10~33쪽.
- 李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813쪽.
- 이홍식, 「東谿 趙龜命 花王本紀 研究」 『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15쪽.
- 주영하, 「제6장 이옥이 기록한 18~19세기 조선의 음식」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화성시 학술총서 01, 화성시, 2012, 213~278쪽.

崔洪奎, 『朝鮮後期 鄉村社會 研究: 正祖時代의 華城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01: 농업환경과 생산문화의 변화』, 화성시, 2018,
378쪽.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ife and farming method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Namyang Coun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Lee Ok's *BaekWoonPil*

Yeom, Jeong-sup

In this Essay, focused on Lee Baek Woon-pil of Lee Ok, a person who lived in Songsan, Namyang county from the late 18th to early 19th centuries, we examined the daily life of rural life at the time,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methods, and the market orien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While experiencing the daily life of rural life in Songsan in detail, Lee Ok directly practiced cultivation of seeds and flowers related to agriculture, and internalized the way of interpreting farmers' natural phenomena.

In addition, Lee Ok briefly summarized the farming methods of the Namyang County area based on his own opinions, and made clear his suggestions regarding the rice farming method, varieties of rice, the importance of ploughing and weeding. He also tried how to improve or improve the farming method, or to explore and experiment with farming methods that can produce a lot of harvest. Lee Ok was approaching principle of farming in a number of ways of hearing and seeing from the old farmers, the peasants, and neighbors.

At that time, in the *BaekWoonPil*, Lee Ok summarized and recorded various aspe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imed at the market. He paid attention to the appearance of making strings or nets through primary processing and conducting his business. Tobacco cultivation also emphasized the merchandise through emphasis on fragrance and spiciness. In addition, the emphasis on cultivation of ginseng, a pronoun for crops, can be found. Cases of raising beef and raising profits were found in Hoseo and Ssangbu regions, and the distribution of flowers

comparable to the flower market was taking place. In this way, the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Namyang County, explained by Lee Ok, was that it was market-oriented.

Key Words Lee Ok, Namyang County, *BaekWoonPil*, Farning Method, Ginseng, Raising Beef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